

기독교의 세속적 기능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전성표
사회학과

<요 약>

오래 전 뒤르카임은 종교가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개인을 규범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했다. 뒤르카임의 전통을 이어받은 도덕적 통제이론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과 來世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독교의 도덕물에 충실할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는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대체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적지 않은 방법론적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1) 실증적 연구의 결과들, 2) 연구 대상자 선정의 문제, 그리고 3) 변인측정의 타당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덕적 통제이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실용성을 재조명한다.

THE SECULAR FUNCTIONS OF CHRISTIANITY REVISITED: A methodological consideration

Sung Pyo Jun
Dept. of sociology

<Abstract>

Long ago, Durkheim suggested that religion normatively controls individuals by making them internalize moral values of the society. Social control theory, based on Durkheimian tradition, argues religious people would stick to the ethical codes of

* 본 연구는 울산대학교 교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히며 감사한다.

Christianity for fear of both God and life after death. Social control theory thus further insists that Christianity would have tremendous effects on individuals' moral attitudes and behavior. This reasoning is generally supported by empirical studies.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been found to have various methodological problems. This article questions the usefulness of social control theory focusing on the 1) inconsistent research findings, 2) respondent selection problems, and 3) measurement procedures of the previous studies.

1. 서론

교회는 사람들이 종교적 신념을 실현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장소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집단이기도 하다. 교회라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독교가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회과학분야에 체계적인 조사방법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 사이에는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이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종교적 목적 외에 사람들이 교회에 참여하며 충족시키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구는 무엇인가, 즉 기독교는 어떠한 비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으로 박탈이론(deprivation theory), 대리가정이론(family surrogate theory), 자녀양육이론(child rearing theory), 지위집단이론(status group theory) 등을 들 수 있다(전성표, 1998).²⁾

박탈이론은 기독교(교회)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운동에 참여할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대리가정이론도 이와 비슷하게 교회가 가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없거나 배우자가 없어서 완성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가정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탈이론과 대리가정이론은 모두 기독교가 교회를 통하여 개인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 준다는 보상의 기능을 강조한다.

자녀양육이론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에게 건전한 윤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독교의 기능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기독교가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가 아동을 자녀로 둔 젊은 부모들의 교회참여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자녀 교육이 젊은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지위집단이론은 거주지나, 직장, 친목단체 같은 집단들이 흔히 유사한 계층이나 지위의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인 것처럼, 교회도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서로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며, 그러한 동질감을 향한 사회적

2) 이 이론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하여 Hoge, Dean R. and Jackson W. Carroll, 1978, "Determinants of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Protestant church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 (2): 107-27을 참조할 것.

육구가 교회라는 집단을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박탈이론이나 자녀양육이론이 미처 설명을 하지 못하는 현상, 다시 말해, 특정 부류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높은 애착을 갖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좋은 대체이론이다. 즉,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완전한 가정을 갖고 있어서 굳이 교회를 통한 사회적 보상이나 심리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이론적 대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전성표, 1998).

이 외에도 기독교는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예: Hammond, 1988), 안정을 얻고자 하는 육구나 자긍심에의 육구 또는 심리적 육구를 충족시켜 주며(예: Pargament et. al, 1978),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예: Hurh and Kim, 1990; Palinkas, 1984)는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 종교사회학계의 집중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는 기독교가 개인의 도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종교사회학 학술지인 "Th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에 지난 20년 동안 가장 자주 등장했던 주제는 바로 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에 관한 것이다. 종교의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는 꽤 오래 되었으나 1990년대 전후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주로 수행되었던 이 연구들은 기독교 신앙심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반 성인들의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 부부 사이의 윤리적 관계와 그에 따른 결혼 만족도, 자녀양육문제 등 기독교가 개인의 태도, 행위,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기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전성표, 1997).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 때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내 학자들은 그 동안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종교사회학 연구의 주종을 이루었던 것은 짧은 기간동안 급속히 성장한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예: 노길명, 1991; 서우석, 1994; 이요한, 1989; 한완상, 1982), 사회계층과 교회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예: 김광억, 1992; 김병서, 1993), 한국 기독교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고찰(예: 김병서, 1995; 노치준, 1995)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순일·한내창(1997)의 연구를 제외하면 국내에는 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특히 실증적인 입장에서 종교의 기능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의 도덕성에 관련된 논문들은 관념적으로 기술하거나 성서적 입장에서 당위적 규범을 추구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며(예: 고용수, 1990; 최봉기, 1990), 실증적인 근거 없이 한국 교회의 타락상을 질타하고 있는 논문도 적지 않다(예: 손봉호, 1990).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빈약하여 기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주로 외국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들이 안고 있는 여러 방법론적 문제점들과, 학자의 관점이나 변인 측정의 방법에 따라 발표되는 연구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독교와 도덕성 사이의 긍정적 관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인간행위에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존의 연구들이 적지 않은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도덕적 통제이론이 안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나아가 도덕적 통제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2. 도덕적 통제이론의 문제점

1) 기독교와 도덕성의 관계

뒤르카임은 종교가 개인에게 도덕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개인을 규범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Durkheim, 1954).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특히 도덕성과 인간애를 강조한다. 십계명 중 여섯 계명은 부모, 부부, 이웃 등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도덕성과 휴머니즘은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영혼의 구제”(永生)에 이르는 윤리(박수암, 1990)라는 점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위를 주로 통제하는 규범과 달리 종교는 양심과 가치관 등 내면세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세속적 규범보다 인간의 행위와 태도를 도덕적으로 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뒤르카임의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반사회적 충동을 억제시키고 사회질서에 순응하도록 한다고 믿어왔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과 來世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독교 도덕률에 충실할 것이며 따라서 기독교는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에 의해 대체로 입증되고 있다.

막스(Marx, 1986)는 인종차별분제와 관련하여 기독교가 개인에게 기존의 사회질서(인종차별)에 순응하게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인식하게 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였다.³⁾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111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막스는 종교가 개인에게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에 순응하도록 한다는 칸 막스의 주장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성이 강한 사람 -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의 교리를 강하게 신봉하고, 교회의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 - 일수록 인종문제와 관련된 기존의 사회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하여 데모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기도나 찬송 등 종교활동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주의적(fundamental) 성향이 강한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하다. 막스가 측정한 종교성(신앙심)은 응답사의 연령, 성별, 성장지역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여성, 그리고 남

3) 막스가 사용했던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당신은 정부가 흑백통합을 너무 느리게, 너무 빠르게, 또는 적당한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흑인은 너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고 데모 등에는 너 적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솔직해 말해 나는 인권운동의 데모에 참여하는 것이 겁난다.”; 4) “당신은 사회에 (흑인들에 의한) 더 많은 데모 또는 너 적은 데모가 있기를 원하는가?”; 5) “어떤 식당의 주인이 만약 그가 원치 않는다면 흑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6) “흑인들이 동등한 권리를 얻기 전에 흑인이 (백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가?”; 7) 흑인이 만일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가?; 8) “어떤 사람이 만약 자신이 원치 않는다면 흑인에게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부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종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모두 흑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이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통하여 막스는 기독교가 개인들에게 사후 세계에 몰입하도록 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과격한 방법을 통한 사회변화를 억제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외에도 기독교가 개인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로는 1) 신앙심이 깊은 또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덕적 가치관이 강하고(Ebaugh and Haney, 1978; Jalen, 1984; Scheepers and Van Der Slik, 1998; Woodrum, 1988); 2) 신앙심이 깊거나 집에서 가정예배를 자주 보는 청소년일수록 심리적 자제력이 강하고, 흡연, 음주, 절도, 폭력 등 비도덕적 행위를 삼가는 경향이 있으며(Bainbridge, 1989; Benda, 1995; Burkett, 1993; Dudley et. al., 1987; Evans et. al., 1995; Grasmick et. al., 1991; Lee et. al., 1997; Strahan, 1994); 3)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ncedy people)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고(Hart, 1992; Neutel and Marini, 1995; Morgan, 1983); 4)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가난한 사람을 위해 비영리단체나 교회에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높다(Regnerus et. al., 1998)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기독교 윤리는 자녀 양육문제, 성윤리, 부부관계 등 가정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Alwin, 1986; Beck et. al., 1991; Call and Heaton, 1997; Cochran and Beeghley, 1991), 이혼이나 혼외(婚外) 성행위를 억제시킴으로써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결혼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예: Call and Heaton, 1997; Dudley and Kosinski, 1990; Glenn and Supancic, 1984).

그러나 도덕적 통제이론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이론이 경험적 연구들로부터 일관성 있는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기독교(독립변인)와 도덕성(종속변인)이라는 두 변인이 다른 여타 변인에 상관없이 직선적 관계(linear relationship)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독교가 행위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으나, 그에 못지 않게 기독교가 인간행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연구가 의외로 많다.

교회에 자주 출석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연구(Hirschi and Stark, 1969)를 필두로 하여, 기독교가 비행을 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행이나 범죄를 부분적으로 조장하고 있고(Bonger, 1969; Cochran, 1988; Lunden, 1964; Shur, 1969), 가정에서 자주 예배를 보는 청소년일수록 물질주의적 성향이 높고, 약물이나 음주에 더 탐닉하는 경향이 있으며(Lee et. al., 1997), 종교적 몰입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탈세의도를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징순인·한내창, 1997).

또 다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출석빈도가 낮은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약하거나(Hoge et. al., 1996), 신앙심이 깊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적 개신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덜 관대한 편(Clydesdale, 1995; Will and Cochran, 1995)이라는 연구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신앙심(종교성)이 행위나 태도에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도덕적 통제이론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와 도덕성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즉 신앙심이 개인의 행위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신앙심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분석모델에 추가할 때 신앙심이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예를 들어 인구학적 변인이나 통제변인(예: 친구관계, 가족관계)을 분석 모델에 추가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동료나 친구의 압력이며(Burkett and Warren, 1987; Chadwick and Top, 1997; Tittle and Welch, 1983), 교회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나 성경공부의 빈도 등은 비행이나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nda and Corwyn, 1997; Cochran et. al., 1994; Elifson et. al., 1983).

기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을 의심케 하는 근거가 스타크와 동료들(Stark et. al., 1980; Stark, 1984)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기독교와 일탈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가 속해 있는 두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유태주의 프로보(Provo)에서는 교회 참석률과 일탈행위 사이의 상관관계가 강한데 반해 와싱턴주의 시애틀에서는 그 관계가 매우 미미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에 근거한다. 즉 프로보는 주민 1000명당 960명 이상이 교인으로 형성된 매우 종교적인 지역인 반면 시애틀은 인구 1000명 당 교인의 수가 280명에 불과한 세속화된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이 비교를 토대로 스타크는 종교라는 것이 일탈을 억제하는 심리적 특성이 아니며, 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은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구조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벤다와 코윈(Benda and Corwyn, 1997)은 미국 남부지역의 중·고등학생 724명을 대상으로 교회출석, 신앙심, 종교적 체험 등 기독교적 변인들이 비행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독교적) 독립변인은 1) 교회출석 - 주일학교 출석빈도와 교회에서의 활동정도, 2) 신앙심 - 기도, 성경공부 및 헌금기부의 정기성(regularity), 및 3) 종교적 경험(evangelism) - 가족이나 친구와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 종교생활의 기쁨과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정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는 노력의 정도 등이다. 종속변인은 규칙위반행위(status offense)와 범죄인데, 규칙위반은 가출, 학교 무단결석행위, 결석에 대한 거짓 핑계를 대는 것 등이며,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예: 거주지 침입, 절도 등)와 개인적 범죄(예: 폭력 싸움, 강도행위 등)이다. 벤다와 코윈은 기독교적 변인 외에도 다른 변인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사회의 전통적 가치질서를 반영하는 변인들(예: 부모와의 친밀도, 교육에 대한 가치관, 직업에 대한 가치관, 학교 내외에서의 활동, 윤리적 가치관)과 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인들(친구들의 가치관, 친구 비행의 모방 정도, 비행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먼저 규칙위반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인들을 인구학적 변인들과 함께 모델(step 1)에 포함하였을 때 세 가지의 독립변인 중에서 종교적 경험은 규칙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앙심과 교회출석만이 규칙위반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심(-.137)과 교회출석(-.153)이 규칙위반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나이(.141), 성별(.100), 가족구조(.079) 등 인구학적 변인들보다 강하다. 그러나 독립변인과 인구학적 변인들에 전통적 가치질서 변인인 부모와의 친밀도, 윤리적 가치관 등의 통제변인을 추가했던 두 번째 모델(step 2)에서는 기독교적 변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사라지고 윤리적 가치관(.478)과 나이(.159)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변인이 추가된 종합적인 모델(step 3)에서는 기독교적 변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비행에 대한 가치관(.257), 윤리적 가치관(.199), 친구관계(.182), 나이(.173)가 규칙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기독교적 변인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변인들

을 차례로 추가해 나간 세 개의 모델에서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적 체험(evangelism)뿐이며, 다른 기독교적 변인인 신앙심이나 교회출석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적 변인과 인구학적 변인이 포함된 첫 번째 모델에서는 기독교적 변인 중에서 종교적 체험(-.127)만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적 체험은 성별(.234)보다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통제변인을 추가한 두 번째 모델에서 종교적 체험(-.140)과 범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윤리적 가치관(.604)보다 훨씬 적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학습변인들까지 포함된 종합적 모델에서도 신앙심이나 교회출석은 여전히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종교적 체험(-.151)은 비행에 대한 가치관(.189)나 윤리적 가치관(.428)보다 범죄와의 관련이 훨씬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심은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쉬퍼스와 밴 더 슬릭(Scheepers and Van Der Slik, 1998)은 네덜란드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종교적 몰입도)와 기독교 교리에 신봉하는 정도(전통적 종교적 신념)가 개인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이들은 종교적 몰입도(.26)와 종교적 신념(.18)은 모두 남성의 도덕적 가치관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종교적 신념(.33)은 도덕적 가치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종교적 몰입도는 도덕적 가치관에 아무런 통계학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배우자들간의 관계에서도 여성의 종교적 신념은 남편의 도덕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남성의 종교적 신념은 부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교적 몰입도는 여성의 도덕적 가치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인구학적 변인인 교육수준이 여성의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도덕적 가치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적 변인들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종교적 변인들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치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둘째로 도덕적 가치관이 인구학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인구학적 변인들보다는 종교적 변인들에 의해 가치관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를 분석한 연구(Regnerus et. al., 1998)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동정적 행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인구학적 변인들에 신앙심(교회출석률, 개인이 느끼는 신앙의 중요성 등)과 교파 등 기독교적 변인들을 변갈아 추가하였던 7개의 모델을 소개하였는데, 모든 모델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사이의 차이는 모든 모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p < 0.01$ 또는 $p < 0.001$). 성별 이외에도 결혼여부, 나이, 소득, 지역사회 크기 등의 변인들이 자선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신앙심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기독교의 교리나 신앙심 자체가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종교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 또는 인구학적 요인이 도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때에 따라서는 기독교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도덕적 통제이론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결

과들을 통하여 학자들(예: Benda and Corwyn, 1997; Burkett, 1993)은 종교와 도덕성의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종교의 도덕적 영향력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기도 하고, 종교는 일탈행위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변인측정의 문제

도덕적 통제이론의 두 번째 문제는 실증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변인 측정의 문제들이다. 학자들 사이에 변인 측정방법이 일관되지 않거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변인들의 타당성이 높지 않거나, 변인의 측정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기독교와 도덕성의 관계를 신뢰하기 힘들다. 학자들이 독립변인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종교성 또는 신앙심의 척도는 개인이 1) 얼마나 자주 교회의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예: 성경 읽기, 기도)을 하고 있는가; 2) 기독교 교리(religious orthodox beliefs)에 얼마나 동조하고 있는가, 그리고 3) 신앙에 기초한 종교적 또는 신비로운 경험(spiritual experience)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경험을 얼마나 자주 타인들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척도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였다(예: Benda and Corwyn, 1997; Bjarnason, 1998; Call and Heaton, 1997; Chadwick and Top, 1993; Regnerus et. al., 1998; Scheepers and Van Der Slik, 1998).

교리의 신봉정도나 개인의 종교적 체험은 신앙심이나 종교성을 측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예배나 종교모임의 참여 빈도로 측정된 신앙심이 도덕성이나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사회의 연구결과들은 한국 교인들을 이해하는데 별로 좋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나라와 서구사회의 기독교인 사이에 신앙체계와 종교활동이 같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의 기독교인들에 비해 교회의 출석빈도와 신앙심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약하다. 교회 출석빈도와 신앙심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서구인들은 우리 나라의 불교신자와 같이 교회의 예배나 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다. 종교의식이나 모임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감은 이들에게 행위와 태도를 결정하는 준거집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출석빈도는 신앙심이나 종교성의 척도로 우리 나라와 서구사회에서 비슷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보기 힘들며, 나아가 그런 개념화에 기초한 서구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신빙성 있는 근거라고 보기 힘들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서구의 연구들이 신앙심의 척도로 교회 출석빈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근거한 연구결과를 한국적 상황에까지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서구의 학자들은 응답자의 교회 출석빈도를 서너 개의 항목(“매우 자주”, “보통”, “별로 참석치 않음”)으로 측정하거나 구체적인 빈도를 제시하며 측정하기도 한다. 응답자에게 교회 출석률을 주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응답자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빈도로 교회출석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신앙심이 실제보다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종교학자들은 교회출석의 빈도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3번”, “한 달에 1번”, “일년에 몇 번”, “전혀 참석 않음” 등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예: Lee et. al., 1997; Regnerus et. al., 1998).

우선 극단적으로 잦은 출석 빈도인 “일주일에 두세 번”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항목의 경우 서구에서는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에 커다란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일요일의 예배를 제외하고 두 번 이상 교회에 참석할 가능성으로는 교회 청소나 성가대 연습을 위한 참여와, 자선 활동이나 바자회 등 일년에 한두 차례 있는 특별 행사의 준비를 위한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급여를 기대하지 않는 자발적인 참여는 다른 동기에 근거한 참여 즉 교회의 비서, 유급 관리인(청소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인턴(intern) 등 급여를 받으며 참여하는 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나 신앙심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와 공리주의적 동기에 기초한 역할 참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열성적 신앙인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출석빈도의 측정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여 의식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일 수 있으므로 분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집단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교회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일년에 몇 번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일 뿐 신앙심에 있어 대단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힘들다. 즉 이들은 모두 교회에 소극적인 사람들로 실제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이들 사이에 대단한 신앙심의 차이가 있는 양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교회활동은 일요일 대예배를 비롯하여 일요 저녁예배, 수요 저녁예배, 금요 구역예배, 새벽기도회, 부흥회 등 예배의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기타 회의나 모임 등의 활동이 매우 많다. 종교모임이 빈번치 않은 서구사회와 달리 만일 한국에서 교회 출석빈도와 일탈행위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적으로 신앙심의 영향이라고 단정짓기가 어렵다. 그것은 교회예배나 활동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일수록 비행이나 일탈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생계활동이나 사회생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남성인 경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활동에 할애하였을 때 비행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종속변인인 도덕성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학자 사이에 여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학자들이 도덕성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였던 것은 1) 가치관이나 태도(예: 정순일과 한내창, 1997; Ebaugh et. al., 1978; Lee et. al., 1997; Scheepers and Van Der Slik, 1998); 2) 비행이나 일탈행위(예: Benda, 1995; Benda and Corwyn, 1997; Burkett, 1993; Chadwick and Top, 1993; Cochran et. al., 1994; Dudley et. al., 1987; Lee et. al., 1997; Strahan, 1994), 그리고 3) 이타행위 또는 불우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예: Beutel and Marini, 1995; Hoge et. al., 1995; Regnerus et. al., 1998; Will and Cochran, 1995) 등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된 사실(fact)로서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가치관이나 태도로 도덕성을 측정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것은 태도와 행위 사이에는 석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점 외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인 본인과 세인들의 규범적 기대가 높다는 사실 때문이다. 기독교는 대부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도덕성을 근본 윤리로 하고 있다. 기독교가 강조하는 도덕률, 기독교가 지향하는 당위적 가치,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세인들의 규범적 기대로 인해 교인들은 가치관에 대해 질문 받았을 때 자신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여겨

지는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전통적인 교파들로부터 정당성을 높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파(예: 이단이라고 비난받는 교파)에 소속된 교인일 경우 또는 기독교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일 경우 자신의 가치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이렇게 규범성을 띤 사안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응답률이 대체로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필라델피아의 연구(Hoge and Carroll, 1978)나, 뉴저지의 연구(Hoge, 1976), 또는 미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King and Hunt, 1975) 모두 응답률이 60%를 채 넘지 못하였다.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전성표(1991, 1998) 연구에서도 응답률은 65%에 머물고 있다. 전성표는 교회 내에서 신도들의 권력관계를 분석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다양한 follow-ups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중 몇몇은 교회라는 상황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라고 고백해 왔다.

어떤 학자들이 사용하였던 도덕성의 척도는 개념의 선택이 적절치 않아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한계를 안고 있다. 쉬퍼스와 밴 디 슬릭(Scheepers and Van Der Slik, 1998)은 개신교와 캐톨릭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와 도덕적 가치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인 종교적 특성은 전통적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몰입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종교적 신념은 천당, 지옥, 마귀, 하나님, 사후 세계 등의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 종교적 몰입도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가 하는 정도로 각각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도덕적 가치관은 이들이 제시한 네 가지 진술에 응답자가 얼마나 동의하는가 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그것은 1) “어떤 사람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느낄 경우 그는 자살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매우 늙고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자신의 복숨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여성은 만약 자신이 원한다면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부탁한다면 의사는 그의 목숨을 꿀꿀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들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된 도덕적 가치관이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몰입도라는 변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두 종교적 변인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정도나 소득과 같은 인구학적 변인들을 훨씬 압도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은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몰입도 등 종교성(신앙심)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신교인과 캐톨릭 신자 사이에는 도덕적 가치관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자살의 권리, 낙태의 권리, 안락사(mercy killing) 등에 관한 가치관이 도덕적 가치라기 보다는 바로 기독교의 교리라는 점 때문이다. 생명 선택의 문제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개신교와 캐톨릭의 핵심적인 교리이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인 생명 선택의 문제를 도덕적 가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 몰입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삶과 죽음의 선택문제는 바로 독립변인인 종교적 신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쉬퍼스와 밴 디 슬릭은 동어 반복적(tautological)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하기 어렵다.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의 도덕적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일탈행동과 제타행위를 함께 도덕성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고(예; Lee et. al., 1997), 일탈행동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예; Benda and Corwyn, 1997; Chadwick and Top, 1993; Lee et. al., 1997). 학자들은 기

독교가 일탈행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이타행위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기독교가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일탈행위는 도덕성의 전부도 아닐 뿐 아니라, 일탈행위와 이타행위는 연장선상(continuum)의 양극단에 있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일탈행동을 적게 하거나,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타행위를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탈행동과 “선한 사마리아인”적 행위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별개의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탈행위와 이타행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일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리와 동료들(Lee et. al., 1997)에 의하면 남을 돕는 행위를 빈번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강하며, 어떤 학자들은 신앙심은 일탈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예: Benda and Corwyn, 1997; Burkett, 1993). 좀더 넓게 교회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자선사업이나 교육사업 등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기여도 많이 하지만 교회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추한 분쟁도 적지 않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예: 전성표와 암스트롱, 1997; 전성표, 1998; 주계영, 1989; Hurh and Kim, 1990; Palinkas, 1984; Carroll, 198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탈행동과 이타행위는 상호 배타성을 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 힘들며, 도덕성이라는 개념의 척도로 함께 범주화하기 힘든 문제를 안고 있다.

3) 연구대상의 문제점

종교의 도덕적 통제이론의 또 다른 문제로 연구 대상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쉽지 않다는 점과, 유사하지 않은 종교집단들이 동일한 분석모델에 함께 포함되어 변인추정이 높은 타당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종교의 통제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학자들은 다양한 연령집단을 분석하고 있으나, 도덕성을 일탈행위로 한정하는 경우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예: 정순일·한내창, 1997; Benda, 1995; Benda and Corwyn, 1997; Burkett, 1993; Burkett and Warren, 1987; Chadwick and Top, 1993; Dudley et. al., 1987; Hadaway et. al., 1984; Lee et. al., 1997; Woodroof, 1985). 학자들은 신앙심, 교회 출석빈도, 가정예배의 유무 또는 빈도, 교리의 신봉 정도 등의 종교적 변인이 음주, 약물(마리화나), 절도, 폭력, 범죄 등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은 일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종교적 변인 외에 친구나 부모(가정환경) 등 의미 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을 분석에 포함시키곤 한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부모나 동료집단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영상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도덕적 통제이론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 중에서 매스미디어를 분석에 포함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전성표(1999)는 울산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생의 46%가 TV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 청소년보다 요보호 청소년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인 경우에 더 심하다. 절반 가까운 청소년들이 TV나 라디오를 통해 여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울산

에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역적 특성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또 한편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화의 매체이다. 많은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영상매체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상매체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에서 표출하고 있는 폭력이나 일탈이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일탈본능을 자극하고 모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예: Phillips, 1991). 특히 우리 나라의 문화가 다분히 폭력 지향적이며, 영상매체가 이러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정당화하고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스미디어가 청소년들의 행위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서성화(1997)는 울산의 청소년 600여명을 대상으로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밝혀진 것은 친구관계, 학생 통제 가능성, 가정의 경제여건 외에도 영상매체에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영상매체의 접촉도는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부분 인구학적 변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기존의 종교사회학적 연구에서 신앙심, 교회 출석빈도, 친구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이 청소년들의 일탈행위 또는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은 매스미디어 특히 영상매체를 분석에 추가할 때 상당히 희석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대상이 주로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고, 함축적이라고 보기 힘든 분석방법에 근거한 종교와 일탈행위와의 관계를 성인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와 일탈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기 쉽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일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성인들에 있어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지위체계와 역할은 비교적 단순하며, 이들의 비행이나 일탈은 우발적이고 감정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전성표, 1999). 이에 반해 성인들의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심각한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은 가족과 자녀부양의 의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할구조, 직장과 생계의 심각성 등으로 일탈과 비행을 하기에 자유롭지 못하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지위로 인한 행위의 노출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들보다 일탈이나 비행을 하기에 덜 자유롭다. 이러한 성인들의 사회적 역할이나 인간관계를 고려할 때 종교적 변인들이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여러 교파나 유사하지 않은 종교를 함께 분석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예: 정순일·한내창, 1997; Regnerus et. al, 1998)들이 있는데 교파나 종교의 차이를 무시한 채 발견된 결과를 단순히 종교와 도덕성의 관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Regnerus와 동료들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돈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6 교파의 개신교인, 2 부류의 캐톨릭 교인, 그 외에 유대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교인들을 함께 분석모델에 넣어 분석하였다. 정순일과 한내창도 '모든 학생이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종교와 원불교"라는 과목의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와 윤리의식을 분석하였는데 정순일과 한내창은 학생들의 신봉

종교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않고 함께 분석의 모델에 포함하였다.

같은 기독교라 하더라도 교파에 따른 성경해석의 차이와 강조하는 교리의 중요성, 목사나 신부의 개인적 신념, 교회마다의 특성과 신앙활동의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윤리가 다를 수 있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문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에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카톨릭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공식적으로 금하지 않는데 반해 개신교에서는 신앙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행위로 규제하는 교회가 많다. 그 외에도 동성연애문제, 폭력을 수반한 사회운동, 이혼과 혼전동거, 준법행위 등도 교파에 따라 또는 종교 지도자의 성향(보수적인가 아니면 진보적인가)에 따라 다른 윤리적 가치로 정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동일하지 않은 교파나 종교가 같은 분석에 포함될 경우 과연 동일한 신앙심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가, 또 개인간에 발견된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종교적 변인에 의한 결과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며, 기존의 개신교 교파들로부터 정통성을 높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교파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이 연구결과를 기독교와 도덕적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3. 결 론

뒤르카임에 의해 제기되었던 종교의 도덕적 통제기능은 종교의 중요한 본질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국내 학자들에게 외면 당해 왔다. 그것은 교회에 세속적인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할 수도 있고(Bowman, 1987), 지극히 규범성을 띤 이 주제가 자칫하면 기독교의 합법성(legitimacy)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때 교인들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할 수도 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실증적 연구가 빈약한 탓에 우리의 지식은 외국의 연구들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의 신앙체계와 종교활동이 서구의 기독교인들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종교의 도덕적 기능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토론된 문제점들은 향후 이 분야의 연구들이 보다 학문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가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수 (1990), “도덕교육이론의 최근 동향: 바른 삶을 위한 교회교육의 기초 이론” 기독교 사상 34권 11호: 38-51
- 권규식 (1995),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이문출판사
- 김병시 (1993), “한국 개신교의 계층성” 사회학대회 발표문
- 김병서 (1995), 한국사회와 개신교: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울아카데미
- 김광역 (1992), “도시중산층의 종교생활” Pp 94-126. 문옥표 외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노길명 (1991), “한국 종교 성장의 사회적 배경” Pp 94-126. 이원규 *한국교회와 사회*. 나단
- 노치준 (1995), 한국의 교회조직: 종교사회학·기독교학 연구서, 민영사
- 박수암 (1990), “복음의 도덕적 조명”, *기독교사상* 34권 11호: 7-17
- 서성화 (1997) “학생 일탈행동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손봉호 (1990),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상* 34권 11호: 86-94
- 이요한 (1989), 그들의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성서연구사*
- 전성표 (1991), “Power Relations in Churches: The Bases of Power and Motivations for Striving for Power in American and Korean Churches. UMI
- 전성표·고든 암스트롱 (1997), “Status inconsistency and striving for power in a church: Is church a refuge or a stepping ston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6, number 1, Pp 103-129
- 전성표 (1997), “교회에서 공평의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과 교회에 대한 개인의 애착심” *사회과학논집* 제 7권 1호 p75-106
- 전성표 (1998), 권력과 조직: 교회 권력관계의 이론과 실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 전성표 (1999), “울산지역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실태” *울산발전 세미나 발표논문*
- 정순일·한내창 (1997) “종교성과 사회윤리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1: 645-669
- 주계영 (1989), 보다 나은 교회를 위해. *베드로서원*
- 최봉기 (1990), “그리스도인의 이중 도덕성” *기독교사상* 34권 11호: 18-28
- 한완상 (1982), “교회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Pp 165-232 *한국 교회 성령운동 현상과 구조*. 대화출판사
- Alwin, Duane (1986), “Religion and parental child bearing orientations: evidence of a Catholic-Protestant converg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412-40
- Bainbridge, William Sims, (1989) “The religious ecology of devi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288-95
- Beck, Scott II., Bettie S. Cole, and Judith A. Hammond (1991), “Religious heritage and premarital sex: evidence from a national sample of young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173-80
- Benda, Brent B. (1995), “The effect of religion on adolescent delinquency revisited.”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 446-66
- Benda, Brent B. and Robert F. Corwyn (1997),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relationship after considering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1): 81-92
- Beutel, Ann M., and Margaret Mooney Marini (1995), “Gender and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436-448
- Bonger, W. A. (1969), *Criminality and Economic Condi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owman, S. Loren (1987), *Power and Polity among the Brethren: A Study of Church Governance*. Elgin, Illinois: *Brethren Press*

- Burkett, Steven R. (1977), "'Religion, parental influence, and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Drug Issues 7: 263-273
- Burkett, Steven R. (1993), "Perceived parents' religiosity, friends' drinking, and hellfire: a panel study of adolescent drinking."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5: 136-54
- Burkett, Steven R. and Bruce O. Warren (1987) "Adolescent marijuana use: a panel study of underlying causal structures." *Criminology* 25: 109-131
- Call, Vaughn R. A. and Tim B. Heaton (1997), "Religious influence on marital stabil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382-92
- Chadwick, Bruce A. and Brent L. Top (1993), "Religiosity and delinquency among LDS adolesce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 (1): 51-67
- Cochran, John K. and Leonard Beeghley (1991),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attitudes toward nonmarital sexuality: a preliminary assessment of reference group theor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45-62
- Cochran, John K., P. K. Wood, and B. J. Arneklev (1994), "Is the religiosity-delinquency relationship spurious?: a test of arousal and social control theor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1: 92-123
- Cornwell, Marie, Stan L. Albrecht, Perry H. Cunningham, and Brian L. Pitcher (1986), "The dimensions of religiosity: a conceptual model with an empirical test."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7: 226-44
- Dudley, M. G. and F. A. Kosinski (1990), "Religios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 research note."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2: 78-86
- Dudley, R. L., P. B. Mutch, and R. J. Cruise (1987), "Religious factors and drug usage among Seventh-day Adventist youth in North America."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6: 218-33
- Durkheim, Emile (1954),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Glencoe, Ill: *Free Press*
- Ebaugh, Helen R. F. and C. Allen Haney (1978) "Church attendance and attitudes toward abortion: differentials in liberal and conservative church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 407-413
- Ellifson, K. W., D. M. Peterson, C. K. Hadaway (1983), "Religiosity and delinquency: a contextual analysis." *Criminology* 21: 505-27
- Evans, T. D., F. T. Cullen, R. G. Dunaway, and V. S. Burton, Jr. (1995), "Religion and crime reexamined: the impact of religion, secular controls, and social ecology on adult criminality." *Criminology* 33: 195-217
- Glenn, Norval D. and Michael Supancic (1984),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divorce and sepa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update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563-75
- Grasmick, H. G., R. J. Bursik, jr., J. K. Cochran (1991), "Render unto Caesar what is Caesar's: religiosity and taxpayers' inclinations to cheat." *Sociological Quarterly* 32: 251-66
- Hadaway, C. K., K. W. Elifson, and D. M. Peterson (1984), "Religious involvement and

- drug use among urban adolesce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3:109-128
- Hart, Stephen (1992) *What does the Lord require?: How American Christians think about economic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ravis and Rodney Stark (1969), "Hellfire and delinquency." *Social Problems* 17: 202-213
- Hoge, Dean R. (1976), *Division in the Protestant House.* Philadelphia: Westminster
- Hoge, Dean R. and Jackson W. Carroll (1978), "Determinants of commitment and participation in suburban Protestant church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7(2): 107-27
- Hoge, Dean R., Charles E. Zech, Patrick H. McNamara and Michael J. Donahue (1996) "Money matters: personal giving in American church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Hurh, Won Moo and Kwang Chung Kim (1990), "Religious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1): 19-34
- Jalen, Ted G. (1984) "Respect for life, sexual morality and opposition to abortio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5: 220-231
- Jun, Sung Pyo and Gordon M. Armstrong "The bases of power in churches: an analysis from a resource dependency perspective." *Social Science Journal* v34 #2: P 105-130
- King, Morton B. and Richard A. Hunt (1975),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3-22
- Lee, J. W., G. T. Rice, and V. B. Gillespie (1997), "Family worship patterns and their correlation with adolescent behavior and belief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372-81
- Lunden, W. A. (1964), *Statistics on Delinquents and Delinquenc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Marx, Gary T. (1986), "Religion: Opiate or Inspiration of Civil Rights Militancy?" Pp 195-204 in Richard J. Peterson and Charlotte A. Vaughan (eds.), *Structure and Process*
- Morgan, S. philip (1983), "A research note on religion and morality: are religious people nice people?" *Social Forces* 61: 683-692
- Palinkas, Lawrence A. (1984), "Social fission and cultural change in an ethnic Chinese church." *Ethnic Groups* 5: 255-77
- Regnerus, Mark D, Christian Smith and David Sikkink (1998), "Who gives to the poor?: The influence of religious tradition and political location on the personal generosity of Americans toward the poo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3: 481-493
- Scheepers, Peer and Frans Van Der Slik (1998), "Religion and attitudes on moral issues: effects of individual, spous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for the*

-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 #4: 678-691
- Shur, Edwin M. (1969) "Our criminal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ark, Rodney (1984) "Religion and conformity: reaffirming a sociology of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45: 273-281
- Stark, Rodney, Lori Kent, and Daniel P. Doyle (1980) "Religion and delinquency: the ecology of a lost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9: 4-24
- Strahan, B. J. (1994), *Parents, Adolescents, and Religion*. Corranbong, New South Wales: *Avondale Academic Press*
- Tittle, Charles R. and Michael R. Welch (1983) "Religiosity and deviance: toward a contingency theory of constraining effects." *Social Forces* 62: 653-677
- Van Roy, Ralph F., Frank D. Bean, and James R. Wood (1973), "Social mobility and doctrinal orthodox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2(4): 427-39
- Will, Jeffrey A. and John K. Cochran (1996)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the effects of religious affiliation, religiosity, and deservedness on generosity toward the poor." *Sociology of Religion* 56: 327-338
- Woodroof, J. T. (1985), "Premarital sexual behavior and religious adolescen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343-366
- Woodrum, Eric (1988) "Determinants of moral attitud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 553-573